

어린이 책꽂이

▲국립중앙박물관 역사관=초등학교 교과과정에 포함된 교과목을 분야별로 정리한 신나는 교과서 체험학습 시리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중앙박물관 역사관에 전시된 유물들이 상세하게 소개돼 있다.

(스콜김영사·7천원) ▲빨주노초 파남보 똥=8명의 작가가 그려낸 8가지 빛깔의 동화집. '자장면 불어요', '엄마의 마흔번째 생일', '노티는 아프다', '바나나가 뭐예요?', '진진군과 두쌍둥', '샘물 세모공' 등이 수록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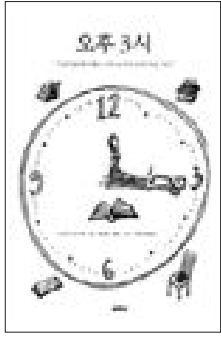
(사계절 출판사·9천원) ▲10대를 위한 바람의 화원(전2권)=조선시대 대표화가인 김홍도와 신윤복의 이야기를 독특한 상상력으로 그려낸 소설가 이정명의 베스트셀러. 당시 생활상과 김홍도, 신윤복의 예술혼 등을 10대들의 눈높이에 맞춰 재구성했다.

(밀리언 하우스·각권 9천원) ▲요란요란 푸른 아파트="완득이" 작가 김려령이 뛰어난 재치와 유머로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따뜻한 필치로 그려냈다. 집이 그저 건물이 아니라 우리와 생사고락을 함께 나누는 가족 같은 존재임을 일깨운다.

(문학과 지성사·8천500원) ▲작곡가들과 떠나는 클래식 음악 여행=바흐부터 모차르트, 현대 음악가 피에르 블레즈까지 위대한 작곡가들과 함께 하는 클래식 음악의 세계가 담겨 있다. 베를린 필하모니 관현악단 잡지에 연재한 내용을 독일의 음악전문 출판사인 소트뮤직 출판사에서 출간했다.

(시공주니어·1만2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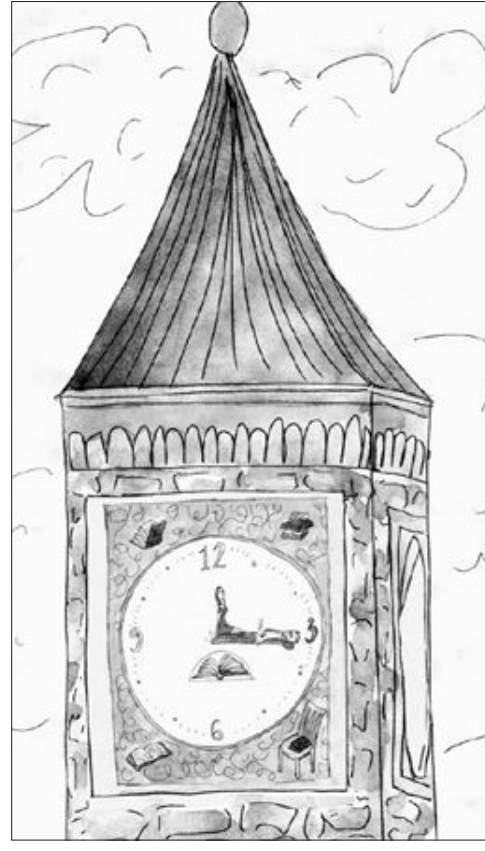
철학, 손끝 하나 안대고 세상을 정복한다



오후 3시 라파엘 앙토방 지음

유명한 저널리스트이자 비평가인 장 폴 앙토방의 아들이면서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의 부인 브루니의 전 애인으로도 유명한 라파엘 앙토방의 저서라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현재 프랑스에서 철학과 현실을 접목시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그는 첫 에세이를 통해 단순한 자신의 철학 이론과 사상을 딱딱하게 전달하기보다 자전적인 이야기를 바탕으로 시적인 문장으로 그만의 독특한 사유의 세계를 풀어내고 있다.

“철학은 멀리 있는 게 아니야”라며 ‘도발적 질문’을 해온 열정적인 젊은 철학 교수 라파엘 앙토방의 자전적 에세이 ‘오후3시’가 출간됐다. 철학적 지평을 열어준다. 저자는 사소한 일상에 서부터 엄청난 비밀을 감추고 있는 자연의 이치와 신의 존재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을 한편의 서사시처럼 능수능란하게 써내려가고 있다. 책은 또 스피노자, 라이프니츠, 니체, 칸트, 사르트르, 장폴레비치 등 선대 철학자와 그 수많은 현대철학자들의 일화를 소개하고 그들의 은밀한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독자들이 보다 친숙하게 철학에 접근하도록 유도한다. “철학은 선택이 아닌 신이 부여한 은총이다. 철학은 어떤 체계이거나 반 체계가 아니라 엄연한 생태계이다. 바로 거기에서 잔인한 약탈자와 무자비한 목동들과 익숙에 밝은 장사치들이, 또 힘없는 희생자들과 기웃거리고 어슬렁대는 주변인들이 함께 균형을 이루고 있다. 철학은 개념들의 전투장이거나 명령을 내리는 무기구가 아니라, 더욱이 보다 나은 삶을 위해 택하는 방법도 아니다.”(111쪽) 이와 관련 저자는 “철학은 세상에 손끝 하나 대지 않고서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다. 철학은 바로 아이의 장난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철학에 대한 ‘즐거운 자주’처럼 읽힌다. 오후 3시, 사르트르가 “무언가를 하기에겐 언제나 너무 늦거나 너무 이른 시간”이라고 말한 그 시간, 나른하고 감미로운 산책처럼 무겁지 않게 철학에 다가갈 수 있게 해주는 책이다. 단, 이 책을 읽고 뭔가 어마어마한 것을 얻으려는 ‘오래된 습관’을 가진 독자들이라면 회담을 잠시 내려 뉘어 할 것. 그도 우리같이 습관처럼 총체적인 것을 두루뭉술하게 뒤섞어버리는 경향



철학에서는 의문이 해답보다 더욱 본질적이며, 중요한 것은 탐색이라고 말한다. 나른한 오후 3시, 주변을 둘러보고 철학적 사색을 즐겨보자. 발레리 해밀씨의 그림. 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글을 쓴 철학자는 감정과 지식 사이의 균형을 결코 잃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열린문·1만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내 인생 한권의 책

장 폴 사르트르 '지식인을 위한 변명'

기자의 청탁을 받고 '내 인생 한권의 책'에 소개하려고 집의 서가를 보니 닐 웨일즈의 '아리랑', 김지하의 '타는 목마름으로', 사르트르의 '지식인을 위한 변명' 같은 오래된 책이 손이 간다. 모두 80년대에 읽었던 책으로 영화 '바하사탕'의 설정구처럼 20대 청춘으로 돌아가고픈 욕망에 사로 잡히게 하는 제목들이었다. 미팅만 하면 애프터에 실쾌하고, 부모님께 물려받은 작은 키를 원망했던 기억, 망월역에 참배하려고 들어가다 잠복중인 형사에 잡혀 닭장차에서 불매 맞았던 기억, 모두 이제는 추억으로 남아 있지만 여태 일처럼 선명하게 기억나는 건 내 인생에서 가장 순수(?)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일까? 이런 기억과 맞물려 가장 인상에 남는 책은 장 폴 사르트르의 '지식인을 위한 변명'이다. 노벨문학상 수상을 거부한 문인이면서 실존주의 철학을 대표하는 사상가, 보브와르와 계약결혼을 한 낭만주의자, 나치가 조국을 침략했을 땐 펜 대신 총을 들었던 레지스탕스 대원, 베트남전쟁을

지식인들의 진정한 삶



반대한 평화운동가. 사르트르는 당시 우리의 아이콘이었다. 그가 쓴 '지식인을 위한 변명'을 나는 열차기 대학 신입생이면서도 지식인임을 자부하며 읽었다. 그뿐 아니라 전공 서적을 공부하는 것은 빨리 부르조아 속성을 떨치지 못한 반동 행위라고 치부하며, 학업에 열중하는 친구에게 모욕을 줄 때도 자주 인용하곤 했다.

먼지가 수북한 책을 펼치니 어느덧 대학 신입생 때인 1982년 겨울이 흑백 사진으로 안와되어 현상된다. 그 해엔 몸시도 추웠고 눈도 많이 내렸는데 대학 지하 소모임 일원이었던 우리 학습을 위해 주말마다 월산동 산동네에 오셨다. 저녁 내내 선배 자취방에서 독서 토론을 하고 밤늦게 거리에 나오면 눈이 내리고 있을 때가 많았다. 우리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고래고래 악을 쓰며 까치고개를 질주하듯 내려왔다. 대성초등학교까지 미끄러지듯 내려와 단골 선술집에서 막걸리를 마시며 취했다. 그 독서모임에선 주로 사회과학 서적을 읽었는데, 얼음참고같은 단칸방에 빙둘러 앉아 누런 때 긴 이불을 덮고 달달 떨며 읽었다. 당시에 '지식인을 위한 변명'은 그래도 이해하기 쉬웠던 책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다시 읽어보니 만만치가 않다. 그래도 페이지마다 밑줄이 그어진 것을 보니 나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다. 가장 여러 번 읽은 그 문장은 "지식인은 지배계급의 헤게모니를 거부하고 그것으로부터 소외된 민중을 지키는 '민중의 옹호자'로 남아야 한다."이다. 이 문장이 당시 내 주목을 끌었던 이유는 아마 지식인으로서 평생을 실천하며 살았던 사르트르의 삶에 진정성을 느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아마, 그 때 들어서도 사르트르처럼 참 지식인으로 살겠다고 밀줄 그으며 다짐했던 것 같은데 아득하기만 하다. 그 시절로 돌아가 나를 만날 수 있다면 '멋진 녀석'이라고 뽐뽐라도 해줄테데. 김영학(극단 허방 대표·극작가)



조선시대 회화·건축·조각 '한눈에'

무량수전... 최순우 지음



지금까지 50만부 넘게 팔린 최순우(1916~1984)의 '무량수전 배흘림 기둥에 기대 서서'(이하 무량수전)를 읽은 사람들은 책을 덮고 나면 한가지 아쉬움을 나타냈다.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유물들을 생생한 컬러 도판으로 만나고 싶다는. 지난 1994년 초판을 냈던 '무량수전' 개정판이 나왔다. 한국 미술사학과 미술평론의 토대를 다진 '한국미 전도사' 해곡 최순우의 전집(5권) 가운데 회화, 도자, 조각, 건축 관련 120편을 묶어낸 '무량수전'은 한국 문화와 관련한 필독서로 자리잡았다. 이번엔 나온 개정판은 130개 흑백 도판 컬러로 바뀌었으며 조선의 조상화, 김홍도의 '군선도', 추사의 '산수', 정조대왕의 '국화' 등 회화와 관련한 10여편의 글을 새로 실었다.

<학고재·1만9천8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말괄량이 삐삐' 작가의 여행 소설

'바다 건너...' 외 3권 린드 그린 지음



'내 이름은 삐삐 톱스타킹'으로 유명한 스웨덴 작가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의 자전적 여행 소설 3권이 출간됐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소개된 린드그렌의 저작들은 대부분 동화였다. 이번엔 출간된 작품들은 청소년과 성인을 위한 소설로는 국내 첫 소개작들이다. '바다 건너 히치하이커-미국에 간 카티', '베네치아의 연인-이탈리아에 간 카티', '아름다운 나의 사람들-프랑스에 간 카티'는 스톡홀름 출신의 20대 여성 카티가 여행을 하면서 인생에 대해 알아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저자는 뉴욕, 시카고, 베네치아, 피렌체, 파리 등 자신이 직접 여행한 도시들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으며 그 곳에서 겪은 다양한 에피소드 등을 통해 삶과 우정, 사랑에 대해 이야기한다. <시공사·각권 1만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사교육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서구점 ☎361-8111
북구점 ☎268-8111
교수진 전원 서울에서 출강! 전국 최대규모를 자랑하는 50명의 출제 위원급 교수진과 36개학원 원 네트워크를 통해 합격시키는 강의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목포점 개원 12월 1일 개강예정
개강 11월 10일(주,아) 주부반, 성인반 국비무료 재직자반
처음시작하신분 위한 기초이론 강좌
연회원 등록시 선착순 50명 수강료 특별할인
국비무료
합격률 1위 전국수석합격
새롭 행정고시학원
수령동 서구청 앞 광주은행 건물 2층
북구점 ☎529-8111
▶ 학정이전, 오차동 북부경찰서 건너편 새문빌딩 4층

유네스코 인정 정규 대학교
한의대 유학! 국내에서 가능!
SCU한의대
캐나다, 미국 한의사가 될수있습니다!
www.scukorea.com
문의전화 010-6834-6253
취업 고민해결! 아메리카대륙에서 성공을!
입학상담/설명회 매일 오후 3시, 4시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44년 전통 합격률 1위
본원출신 전국수석 (승은영님 평균 96.7점)
"2009년 20회 공인중개사 시험대비는 지금부터 단계적으로 준비하십시오"
기초과정 → 기본이론 → 심화이론 → 핵심요약 최종문제풀이
개강 11월 10일 기초이론 & 용어 해설
광주고시학원
직업인을 위한 교육보험 발급과정
본원 ☎ 227-8003 전남여고 맞은편 3F
수강료 20% 할인혜택 (50명) 주부반·성인반 (주간반, 야간반)
국비무료
검단점 ☎ 971-0002 (구미로 합동빌딩 광주은행 4F)

= 지금도 지혜로운 많은 수험생들은 47년 전통의 무등을 찾고 있다 (청강현영) =
7.9 급 공무원 합격 대비
직통 행정고시관법검정출교보보복소기 정육무세원찰공관정전호지방술
'09년 시험은 지금부터
시험일자: 9급 국가직 4월 11일, 7급 7월 25일~시험 0.000명 7·9급 지방직 6월 하순 시험 ※09년 1월1일 이후부터 응시 사항 변경이 폐지된다.
11월 17일(주,아간반 모의) (현재예약접수중)
합격 회원 모집
6개월: 90만원 (교재 17만원 포함)
주·야간반+기초(英·國) 무료특강 ※수강료가 저렴. 필수합격 확실히.
광주 동부서 뒤 (중앙초고 후문앞)
www.mdgosl.co.kr
222-4560